

공란우 선정을 위한 유전적 혈통 및 능력검정방안

서 양 환

서라벌가축개량소

1. 제 언

2001년 국내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소값 파동에 이어 예기치 않았던 IMF한파라는 걸림돌을 넘어야 하는 우리 축산인들이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지 모를 현실에 비추어 암담하기만 하다.

한편 국내 쇠고기 소비량중 한우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고급육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반 여건은 시초부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축 개량의 기본은 1) 등록, 2) 심사, 3) 검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우 개량단지와 가축개량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처럼 종모우 및 종빈우의 신뢰도 높은 자료를 얻고 있지 못하다. 향후 보편화될 수정란이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정란을 공급할 능력이 공인된 공란우(供卵牛, donor)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우 종빈우의 번식능력 및 종모우의 육생산 능력검정 등의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는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및 민간이 많은 경비 및 노력을 하여 왔다. 단, 농업분야 중 축산업분야 특히 대가축분야의 투자의 성과는 오랜시간을 두고 기다려함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열매를 얻으려는데에 기이한 것이다. 세계에서든 육질이 우수한 한우가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관행적인 방법으로 사양관리 되어 왔으나 다행이 정부에서 80년대 들어 한우 개량단지를 조성하고 90년대 들어서는 한우 개량농가 지정을 추가하여 종빈우 개량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1995년 10월부터 농림부와 한국종축

개량협회가 주관 기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 전산화 사업은 우리나라 축산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추진되어 왔으나 일선의 농가 및 행정기관 및 전산입력 요원 등의 활동부진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는 그 명맥만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문제점

국내 한우의 혈통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개량단지 조성과 함께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공수정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정액공급의 계획성 있는 공급이 가축개량의 최선의 방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너무 안이한 발상으로 일관하여 왔다.

가. 지정 종모우의 선정 및 교체

국내 한우는 1979년 각도에 1개소씩 8개소의 개량단지 조성을 시점으로 매년 증설하여 1998년 현재 250개소의 한우 개량단지가 조성 운영되고 있다.

근친번식으로부터 오는 퇴화(기형, 맹목, 무모, 난제, 능력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2년마다 교체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다.

한우 개량단지 종빈우의 발육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단지별로 공통적인 결함 부위를 찾아내어 고쳐나갈 종모우를 선발하여 정액을 동단지의 계획교배용 종모우로 지정한다. 이도 처음부터 체계적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혈액검사 등의 방법으로 친자확인을 했을 시 친자확인율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의 입력 미숙 및 오(誤)기장에 기인한다고 본다.

나. 지역의 정액공급에서의 문제점

개량단지과 개량농가 지정전 사용한 정액이 단지 지정 후 기 사용한 정액이 지정 공급되면서 근친교배에 의한 불량형질 발현 및 생산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정액공급이 단일화 되어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나 지역의 수정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 검정두수의 문제점

현재 국내에서는 당대 및 후대검정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나 검정두수가 극히 적어 신뢰도(정확도)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 또한 종빈우의 능력을 전혀 고려되지 않아 번식용 종빈우(공란우, donor)로서의 확보가 단순 형질인 외모심사, 발육조사 성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라. 난포획득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수정란이식사업은 실험실에서의 과정을 지나 현장에 접목시키는 단계에 있으며 향후 수년내 국내 가축인공수정의 보급률보다 빠른 보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추정되나 수정란 제조에 필요한 원시난포의 획득 및 수정란 취득은 1) 도축장에서 채취, 2) 종빈우 사육농가에서 채취, 3) 기타 구입 등으로 공란우의 혈통 및 능력검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4. 개선방안

지금까지의 언급한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추진과정에서의 미비나 계획성 있는 준비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한우 개량단지 및 지역의 정액공급의 문제점은 기 공급된 정액의 배포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지속적인 근친교배의 피해를 한우 사육농가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므로 정액의 권역별 분류 공급이 필요하다.

둘째, 검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더 많은 두수의 선정과 특정기관의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의 전 두수를 검정대상우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능력이 우수한 수정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란우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된 한우개량단지내의 보통등록우 이상의 소(牛)를 선정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소(小) 지역단위에서 우수한 종모우를 선발하여 수정란을 획득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전체 우군의 등록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아울러 추진되고 있는 등록이 완성되어 철저한 전산관리로 분만에서 도태까지 모든자료 입력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서 자료가 종합분석되게 하면 종모우는 물론 번식에 공용되는 종빈우까지도 종합적으로 능력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향후 21세기 가축개량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정란이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개량의 강도를 높혀 나가려면 반듯이 종빈우의 능력검정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추진하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 전산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정부의 주도아래 축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새로운 검정사업이 요구되어 진다.